

“5·18 정신 담은 개헌 불성립, 책임은 정치권에”

국민추진위·오월 단체·시민사회
국민의힘 표결 미참여 강력 규탄
“민주당도 정치력 더 발휘했어야”

5·18정신헌법전문수목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오월 공법단체 등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 의결이 불성립되자 정치권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7일 성명을 통해 “부담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다”며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결단을 요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재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다”고 개헌 무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질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무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평가하고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월 공법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모자회, 5·18민주유공자우족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5·18과 부마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표결조차 외면한 것은 역사 앞에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광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국민의힘은 이번 단계적 개헌안 처리 과정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킴으로써 내란 옹호 세력의 추악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는 이 불의한 세력을 시민의 힘으로 응징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연상·서형우 기자



7일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학 본관 2층 이사장실 앞에서 법인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프랑카드를 건 채 제거봉성을 하고 있다. /박선욱 기자

조선대 5기 이사 선임 이사회 ‘무산’

민주동우회, 이사장실 앞 점거 농성

“9명 중 5명 고교 동문...개혁이사必”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7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이사회가 무산됐다.

조선대 등에 따르면 법인은 이날 오후 제5기 이사 선임에 대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조선대 민주동우회의 이사장실 앞 점거 농성으로 열지 못했다.

조선대 법인은 현 이사회의 임기가 오는 6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는 정이사 3명과 개방이사 6명 등 총 9명의 이사 체제로 운영되며, 현재 9명의 이사진 가운데 8명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대학자치운영위원회(대자협), 민주동우회가 김이수 현 이사장의 독단적 행위를 잇따라 규탄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이사회 구성을 위한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 9명의 5기 이사 가운데 여성 이사 3명을 제외하면 5명이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차기 이사장 내

정실에서 더 나아가 차차기 이사장까지 내정돼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후면 입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것만으로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자위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혁신과 개혁’을 추진할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서도 점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 줄 이사를 선임하는 게 법인의 목표”라며 “학연과 지연으로 뽑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5·18문학상 본상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

백무산 시인...오는 23일 시상식

신인상 박소영·한창현·류상희씨

5·18기념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계간지 문학들이 공동 주관하는 ‘2026 5·18문학상’ 본상과 신인상 수상작이 결정됐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기성작가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는 본상에는 백무산(사진·72) 시인의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시집에 대해 “5·18이 과거



완료형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는 역사적 현재라는 문제의식 아래 그 현재성을 동시대적 삶과 어떻게 엮어내는가에 주목했다”고 평했다.

백 시인은 1984년 민중시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뒤 노동 현장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온 작가다.

5·18문학상 신인상은 소설 부문 박소영의 ‘오월의 스카우트 리포트: 사라진 드림팀’, 시 부문 한창현의 ‘양림동 고양이’, 아동문학 부

문 류상희의 동시 ‘플라타의 노래’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오월문학제 행사와 함께 열린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이 주어진다.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으로 소설 부문 500만원, 시 부문 300만원, 아동문학 부문 3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수상작은 계간지 문학들에 수록될 예정이다.

한편 5·18문학상은 5·18정신을 기리고 오월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신인상을 통해 신인작가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상은 2016년부터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연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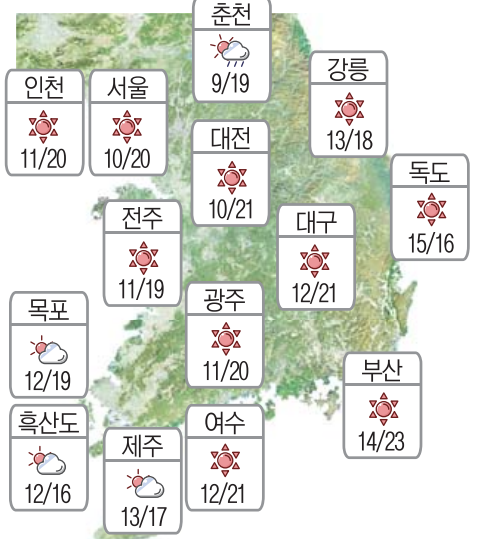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해질 19:24 🌙달돋이 00:26 달짐 10:14

●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1/20	장성	맑음	10/19
목포	구름조금	12/19	보성	맑음	10/19
여수	맑음	12/21	함평	맑음	10/19
나주	구름조금	10/20	순천	맑음	11/21
완도	구름조금	11/21	영광	맑음	10/18
구례	맑음	10/19	진도	구름조금	12/18
강진	구름조금	10/20	흑산도	구름조금	12/16
해남	구름조금	10/20	고흥	구름조금	11/21
광양	맑음	12/21	담양	맑음	10/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면바다(북) 1.5-2.5	0.5-1.0 1.0-2.0
남부	면바다(남) 1.5-2.5	1.0-2.0
남해	앞바다 0.5-1.0	0.5-1.0
서부	면바다(동) 1.0-2.0	1.0-2.0
	면바다(서) 0.5-1.5	0.5-1.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5:59	11:24	여수	00:34	06:57	녹동	01:24
	17:52	23:08		12:34	18:35		13:12
							19:35

●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70 세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 주간 날씨

9일(토)	10일(일)	11일(월)
☀(7/23) 맑음	☀(9/25) 맑음	☀(13/25) 맑음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27) 구름조금	☀(16/27) 구름조금	☀(17/27)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환온-환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유학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와 백중, 구경,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대표전화 | 062-234-4576
www.haewonjungsas.com